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司書職과 學的 背景問題

千 惠 鳳

大學은 한 나라의 最高教育機關이요, 深奧한 學術을 研究하는 機關이다. 그 中에서도 大學圖書館이 그 中心이며 心臟部로서 어느 種別의 圖書館보다도 가장 知的 水準이 높은 讀者가 利用하는 教育場所요, 研究場所인 것이다. 特히 學生의 立場에서는 現代教育의 講義 一邊倒的인 傳達式 乃至 注入式教育方法을 止揚하고 學生 스스로가 自發的으로 事實을 調査하고 研究하는 學習方法을 重視하고 있음에 비추어 大學圖書館이 바로 그 唯一한 學習場所가 되는 것이다. 大學圖書館은 教科書를 豫習 또는 復習하거나 緊迫하게 닥쳐온 試驗準備를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곳은 아니다. 學生 스스로가 自己의 想像力과 探求心이 미치는 限, 마음 껏 思想의 世界를 探求하는 自由, 他人이 손을 대지 않은 分野를 研究하는 自由, 自己 素質에 알맞는 職業과 技術의 發展을 위한 事實을 探知하는 自由를 提供해 주는 곳이다. 一言以蔽之하면 自我開拓을 위한 方法을 自由로써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圖書館인 것이다. 在學時節에 圖書 및 圖書館의 利用方法을 잘 알고 있는 學生은 卒業後에 있어서도 一生을 通하여 自我開拓을 위한 教育을 繼續할 수 있는 것이다. 圖書館에 있어서 資料를 選擇하여 體系있게 整理한다 든가, 運營의 妙를 期한다 든가, 또 參考奉仕를 보람 있게 한다 든가 하는 것 등은 窮極에 있어서 그 目的이 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듯 大學教育에 있어서 圖書館이 차지 하는 比重이 크건대 그 圖書館을 實際 運營하고 奉仕하는 職에 있는 우리 司書들의 소임은 그 얼마나 重且大한 것인가. 우리는 이 瞬間 다시 한번 깊이 깨닫지 않을 수 없다.

Fahs 氏가 大學圖書館의 司書職에 對하여 言及하기를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效果的으로 發揮하려면 司書의 質, 그 知性, 이니시아티브 그리고 奉仕의 精神이 크게 作用되어야 한다. 大抵 훌륭한 司書라면 單純한 圖書 保管人 또는 管理者, 事務員이 아니요 무엇 보다도 먼저 教育者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司書는 圖書館 利用者에게 大한 量의 人間의 知識과 文化中에서 何

時를 莫論하고 利用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特定한 事實과 著作을 찾아 내서 가리켜 주고 도와 주는 案内者인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司書가 되려면 폭이 넓은 學問과 興味와 關心이 必要하다. 司書는 가장 優秀한 教師와 教授에 決코 遜色이 없는 程度로 學生에 對하여 關心을 갖고 教育에 獻身함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Wilson 氏는 『大學圖書館司書를 從來는 圖書館을 運營하는 技術者나 管理者로서 認識해 왔지만 이제는 學校 管理者 教授 學生 및 其他 伴侶들을 위하여 責任을 지는 教職員이며 또 學校의 教育目的을 計劃하고 遂行하는데 全的으로 參與하는 適任者』라고 喝破하였다. 또 先進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의 專門職司書는 副教授의 待遇를 받고 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것은 大學圖書館의 司書라면 副教授 程度의 學問의 깊이가 있어야 하고 또 所定의 司書教育을 履修하여야 된다는 것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 本人은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大學圖書館에 있어서도 專門職司書는 外國과 같이 待遇는 못할 망정 이를 參酌하여 어느 程度의 待遇改善이 있어야 된다고 異口同聲으로 建談을 거듭하고 있는 터이다. 本人도 멀지 않은 將來에 그렇게 되기를 希望하는 사람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는 우리 司書들의 自我批判과 꾸준한 實力의 培養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權利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相應하는 義務가 隨伴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政府나 學校當局에 對하여 待遇改善의 要求를 提起할 때는 그 要求에 符合되는 義務를 다 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 가도 冷靜한 立場에서 自問하고 反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이 兩者가 어느 程度 均衡이 잡혀질 때 비로소 참다운 社會의 公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分野 어느 職務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一方의인 要求라든가 主觀的인 自負心은 效果를 거둘 수 없고 자칫하면 도리려 冷笑의 對象이 되기 쉬운 것이다.

위에서 大學圖書館의 司書職에 對하여 言及하였다. 우리 司書들의 地位를 向上시키고 나아가서 圖書館業務 全般에 걸쳐 이를 能率的으로 遂行하려면 무엇보다

도 먼저 司書들 스스로가 知識과 實技의 面에 있어서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그러면서도 兩者에 걸쳐 均衡 잡힌 實力을 갖도록 꾸준히 努力하여야 하겠다.

大學圖書館의 司書로서 一般的이고 또 專門的인 知識을 具有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學的 背景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一. 一般教養 및 語學的 背景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最高學部의 大學圖書館에서 가장 知的水準이 높은 利用者를 對象으로 奉仕하는 司書가 되려면 Russell氏가 말하고 있듯이 그 基本要件으로서 人間知識의 全分野에 걸친 一般教養과 語學과 實力을 必要로 한다. Lyle氏도 大學圖書館司書의 採用基準에 있어 學歷問題에 對해서는 定規大學을 卒業하고 最少限 一年課程의 司書訓練을 받은 者라야 된다고 言及하였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の 學歷이 있는 者』라야 正司書의 資格이 있다고 法制化하였다. 確實히 大學圖書館의 司書가 되려면 基本的인 要件으로서 적어도 大學教育課程에서 習得하는 程度의 教養科目과 語學實力이 있어야 되겠다. 萬一 이 두가지 要件中 어느 하나라도 不足하거나 缺乏되어 있다면 有能한 專門職司書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顯한 事實이다. 그 까닭은 圖書의 選定, 分類 및 編目, 抄錄 索引書誌의 作成, 參考奉仕 등 어떤 分野에 있어서도 能率的인 業務遂行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特히 大學圖書館의 司書職은 言語와 文字에 拘碍됨이 없이 洪水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資料를 選擇蒐集하고 整理하여 그 利用을 指導하는 奉仕職인 點에서 이 두가지의 資格與件이 強調되는 것이다. 勿論 人間の 頭腦는 限定이 있어서 도저히 學問全分野에 걸쳐 깊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一般的인 基礎知識과 國際적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는 英語를 비롯한 數種의 外國語를 解得할 수 있는 實力만 있다면 文獻을 利用하여 어떤 特殊한 問題라도 이를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의 司書라면 第一次의로 이 두가지의 學的 背景이 있어야 한다.

二. 圖書館學的 背景

圖書館學에 對한 定義는 나라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지만 이를 綜合하여 端的으로 表現하면 圖書館에 關하여 그 理論과 技術을 組織적으로 研究하는 學問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에 있어서의 圖書館學은 實技에 못지 않게 哲學的이고 理論的인 面의 研究를 重視하고 美國에 있어서는 理論的인 面 보다는 도리어 實技的인 面 다시 말

하면 實質的이고 經驗的인 面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傾向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收復後 美國에서 導入된 圖書館學的의 影響을 받아 亦是 實技面에 置重하고 있는 實情이다. 圖書館에 있어서 무엇 보다도 技術이 重要하다는 것은 누구도 否定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司書로서 갖추어야 할 資質에 있어서 技術이 그 全部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技術萬能主義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가장 濃厚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技術도 健全한 知識의 基礎 위에서 體驗된 것이어야 올바르게 評價되는 것이다. 萬一 前記한 바와 같은 一般的인 教養과 語學 그리고 圖書館學에 對한 知識이 缺乏되어 있다면 올바른 技術은 도저히 體驗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點으로 보면 우리들이 司書로서의 구실을 다 하려면 于先 圖書館學에 對한 健全한 理論과 知識을 알고 이를 土室로 하여 올바른 技術을 體驗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圖書館學에 있어서 理論的이고 또한 專門的인 知識은 他學問이 그러 하듯이 多樣性을 띠고 있다. 圖書館學을 細分하여 볼 때 그 細分된 分野에 各各 特有한 理論과 專門的인 知識을 必要로 하는 面이 있고, 또 全體로서 圖書館學을 考察할 때도 거기에는 理論的인 體系가 있는 것이다. 몇 가지의 例로서 前者에 있어서는 分類와 圖書 및 圖書館의 歷史的 研究를 들어 보자. 分類에 있어서는 分類理論과 原則이 있어 이를 먼저 잘 理解하여야만 올바르게 實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圖書 및 圖書館의 歷史的 研究는 寫本 또는 板本の 形態와 內容의 變遷 또 圖書館의 史의 考察을 記述하는 것으로서 이 分野의 專門的인 知識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後者에 있어서는 社會的으로 圖書館이 어떠한 役割을 하는 것인가 좀 더 高次的으로는 圖書館哲學이란 무엇인가에 對한 研究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말하는 圖書館哲學은 觀念論的이고 形而上學的인 理論의 展開가 아니라 圖書館의 目的 效用 機能 등 圖書館全體를 理論的으로 體系化하므로써 圖書館이 무엇인가를 論하려는 것이다. 그 先驅的인 구실을 한 著述은 印度의 圖書館學者 Ranganathan氏의 “圖書館學五個法則”(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1931)과 美國의 시카고大學圖書館學科 教授 Butler氏의 “圖書館學概論”(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1933)을 들 수 있다. 이 兩著述에 對해서는 不充分하다고 評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系統的으로 그리고 組織적으로 記述된 初期의 圖書館學概論書로서 그 業績이 높게 評價되는 것이다.

더욱이 最近에 이르러서는 圖書에 記錄된 情報이 션(information)을 社會에 傳達(communiction)시키는 主要媒介가 바로 圖書館이라는 觀點에서 圖書館의

現象을 科學的으로 考察하고 또 그 理論을 應用하여 圖書館을 機械化하는 問題까지 研究하므로서 보다 더 視野를 넓혀서 圖書館學을 體系化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要컨대 大學圖書館에 奉職하고 있는 司書는 圖書館學의 各分科學에서 全體에 이르기 까지 理論的이고 專門的인 知識에 對하여 于先 通曉하고 이를 土壘로 하여 健全한 技術을 體驗함으로써 보다도 깊이 있고 均衡 잡힌 圖書館學의 背景을 갖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三. 專攻分野에 必要한 基礎學 및 補助學의 背景

무릇 他學問 또는 他專門職分野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圖書館學 또는 圖書館業務에 있어서도 細分하여 깊이 研究하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그 學問이 發展하고 擔當한 業務가 合理的으로 改善되어 能率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境遇 學問의 深奧한 研究와 專門職의 合理的인 發展을 도와 주는 열쇠는 그 研究에 基礎가 되는 學問과 또 密接한 關聯이 있는 補助學에 對한 知識인 것이다. 萬一 專攻에 必要 不可缺한 이 基礎學과 補助學의 知識이 缺乏되어 있다면 그 學問은 깊이가 없고 그 專門職은 踏步狀態에 位置하게 될 것이다.

電氣工業에 從事하는 技術者가 自己業務分野에서 새로운 技術을 發見하고 보다도 高次的인 것을 發明하려던 基礎學 卽 物理學 그 중에서도 特히 電氣 및 磁氣學 그리고 必要에 따라서는 數學에 對한 知識이 必要한 것이다. 또 古代史를 專攻하는 教授가 그 分野의 權威者가 되려면 이에 該當하는 歷史文獻 以外에도 考古學 金石學 古錢學 등의 補助學에 對하여도 精通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 例에 있어서와 같이 圖書館學 또는 圖書館專門職에 있어서도 自己의 專攻 또는 擔當分野를 研究하여 改善하고 發展시키려던 그 研究에 必要한 基礎學 또는 補助學의 背景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例컨대 우리의 現實에 適應되도록 圖書館의 管理 및 組織을 體系化하려던 그 研究에 基礎的 乃至 補助的인 구실을 하는 教育學 管理學 行政學 社會學 社會心理學 乃至 統計學

등의 知識을 導入하고 既刊된 管理 및 組織에 關한 文獻을 널리 參考해서 研究하여야만 效率的으로 圖書館을 運營할 수 있는 現實的인 方案이 마련되고 또한 깊이가 있는 學이 成立되는 것이다. 參考業務分野에 있어서도 主題別로 參考機能이 分割되어 있다 든가 또 醫科大學 農科大學 工科大學과 같이 專門性을 띤 大學圖書館에 있어서는 一般參考司書 以外에도 專門的 教育과 圖書館學教育을 받은 司書의 配置가 必要한 것이다. 이 境遇 主題 또는 專門分野를 擔當하는 參考司書는 그 分野의 基礎學과 補助學에 對한 知識 및 그 特定學問의 發展過程에 對한 理論的인 背景이 깊을수록 더욱 보람 있는 奉仕를 할 수 있음은 勿論이다. 또 參考司書는 教育學에 對한 知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學生의 興味 要求 및 能力에 따라 參考圖書 및 一般圖書館資料의 利用法을 指導하고, 資料索出法과 論文作成을 도와 줄 수 있으며 또 質問과 相談에 應하여 個性과 個人差에 따라 個人指導를 하는 이른바 間接的인 教育機能을 發揮하는 任務를 擔當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收復後 美國에서 導入된 圖書館學의 理論과 實際에 立脚하여 教育을 받아 왔으나 그 習得한 바가 우리 現實에 適應되지 않는 면이 적지 않음을 經驗해 왔다. 그것은 社會 經濟 文化事情이 우리의 越等한 差異가 있는데서 起因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韓國의 制度和 實情에 맞도록 獨自的인 見地에서 專攻分野를 定하고 研究하여야 할 段階가 왔다. 이러한 態度는 非但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種別의 圖書館과 圖書館教育課程에 있어서도 適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以上에서 大學圖書館의 司書職의 重要性和 司書가 具有하여야 할 學的 背景에 對하여 言及하였다. 要컨대 大學圖書館의 司書職에 對한 認識을 높이고 그 待遇改善을 꾀하려던 法的 規制에 依한 方法도 重要하지만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우리들 스스로가 實力을 培養하여 學校管理者 教授 其他 伴侶 나아가서는 一般社會의 公認을 받도록 努力함이 喫緊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筆者 東國大學校圖書館司書課長)

(13面에서 繼續)

甲種講習으로 認定하도록 建議內容을 作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議長(崔渡詰): 河先生께서 提案한 內容을 充分히 反映시키기로 하고 建議文草案作成委員會를 이 자리에서 委囑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 全員 贊成으로 採擇可決되다 —

議長(崔渡詰): 委員會를 어떠한 方法으로 委囑하는게 좋겠습니까?

金萬燮(馬山農高校 司書教師): 지금 提案說明을 하신 河龍泰先生과 釜山高校의 李珪範先生 그리고 韓國圖書館

協會 崔根滿先生님으로 構成하여 作成토록 動議합니다. 議長(崔渡詰): 建議文草案作成委員 3인이 呼應되었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 全員 贊成으로 可決되다 —

議長(崔渡詰): 委囑을 받은 세분은 苦生이 되시더라도 今日中 作成하여 大會가 끝난 다음 本大會이름으로 關係當局에 提出하여 早速한 期間에 施政의 反映되도록 手筈해 주시기 바랍니다. 座席도 不便한데 끝까지 盛況을 이루어 주신 全國會員에게 感謝합니다. 이것으로 大會日程을 全部 마칩니다.

— 一同拍手로 閉會하다 —